

중년기 부부 위기와 기독교상담

김 미 경*

국문초록

중년기는 성인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년기 특성에 따른 딜레마와 고통, 기쁨, 발달과업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중년기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것들과 작별을 고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된다. 중년기는 인생주기에서 가장 긴 시기로 소위 샌드위치 세대이다. 중년기는 인생의 절정기로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인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한계를 인식하며 변화에 재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중년기 부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재적응의 과제를 만나게 된다. 그동안 자녀들의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바쁜 삶을 영위해 온 중년기 부부는 이제 자녀들의 독립으로 젊은 시절의 낭만과 열정은 상실한 채 빈 등지에 남은 한 쌍의 부부로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재평가하게 된다. 부부갈등은 대개 부부당사자와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며,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가족문제는 가족해체일 수 있기에 중년기 부부들이 안고 있는 위기의 원인들을 진단하여 기독교 상담으로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 중년기 부부, 위기, 기독교상담, 성숙성, 의사소통

• 논문 투고일: 2010년 09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2일
*한영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0년 10월 27일

I. 여는 글

중년기는 생의 주기에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인생의 절정기로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인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한계를 인식하며 변화에 재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중년기는 대개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로 본다.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Jacques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중년기 위기에 대한 인식은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에 예술가의 작품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함을 발견하고 이것은 자신의 사망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¹⁾

중년기는 발달단계에서 20여년이 넘는 가장 긴 기간으로 크고 작은 다반사의 문제가 있는 시기이다. 중년기 특성에 따른 딜레마와 고통, 기쁨, 발달과업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중년기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것들과 작별을 고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므로 중년기는 성인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은 중년기가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때이기도 하지만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aul Tournier가 ‘인생의 네 계절’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인생의 제2의 전환점을 과도기로서 다룬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²⁾

에릭슨의 주장에 의하면, 중년기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원활히 되지 않는 개인에게는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격발달의 침체성(stagnation)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에릭슨에게 있어서 이 성숙성(generativity)의 에너지는 중년의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하겠다.³⁾ 그에

1) E. Jacques,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1967): 502-514.

2) Paul Tournier, *The Four Seasons of Life*, 한준석 역, 『인생의 네 계절』 (서울: 종로서적, 1981), 102-111.

3) 여기서 generativity라는 에릭슨의 학술용어는 성숙성으로 번역한다. 실제로 에릭슨 자신도 이 용어에 대한 사용을 productivity(생산성)와 creativity(창조성)의 종합적 의미가 있음을 말한바 있다.

의하면 중년이란 사회나 개인의 환경이 요구하는 성숙성(generativity)이 발달의 과제로 나타나는 시점인데 이 성숙성이란 다음세대를 위하여 삶의 여러 여건들을 조성해 주고 계승해 주는 발달의 덕목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타인과의 관계성에 발달의 초점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개인보다는 타인,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돌봄의 책임성이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실현되는 단계를 말한다.

McAdams와 Aubin은 전반적인 성숙성⁴⁾의 관심에 대한 개인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20개의 자기-보고 질문서(Loyola Generativity Scale, LGS)를 구성하였다. 연구 조사결과 중년기의 LGS 점수가 청년층이나 노년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과 양육이 성숙성의 관심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아버지들의 LGS 점수는 아버지 경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성숙성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한 번도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한 남자는 LGS 점수에서 아버지나 여자 전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⁵⁾

Sheehy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전문직에 있는 45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들은 낙관적이었으며 평온한 특성을 보인다고 전한다. Sheehy가 인터뷰한 남성들 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competing)과 성적인 관심에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친밀감과 신뢰, 동반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connecting)를 가지려는 사람들이었다.⁶⁾

이처럼 중년기는 동반적인 관계에 비중을 두는 시기이므로 중년기 부부의 화두는 '남은 삶을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로 시작될 수 있다. 그동안 자

4) McAdams는 성숙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에 대한 인터뷰 결과 성숙성에 대한 점수를 상, 중, 하로 구분했다. 상에 위치한 사람들은 직접적(보살핌, 가르침, 이끌어줌, 조언함), 혹은 간접적(그들이 창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안정시키고 가이드 하는데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성숙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성취와 관계에 대한 동기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5) Dan P. McAdams & de St. Aubin,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20-21.

6) Gail Sheehy, *New Passages* (New York: Random House, 1995), 274-277.

녀들의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바쁜 삶을 영위해 온 중년 부부는 이제 자녀들의 독립으로 젊은 시절의 낭만과 열정은 상실한 채 빈 둥지에 남은 한 쌍의 부부로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재평가하게 된다.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루어진 애정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가족의 기초가 되며 비 혈연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다.⁷⁾ 그러나 부부갈등은 대개 부부당사자와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며,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가족문제는 가족해체일 수 있기에 중년부부들이 안고 있는 위기의 원인들을 진단하여 기독교 상담으로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중년기 부부위기의 제 증상들을 살펴 본 후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상담학적인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중년기 부부 위기의 증상

1) 개인적 위기

중년기의 남성들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정서적 반응은 탈모에서 비롯된다. 중년 남성들의 화두는 머리카락으로 시작된다. 머리가 빠져 작은 공터가 생긴다는 것은 약해진 남성의 싸인이다. 머리카락은 삼손의 경우 남자로서의 힘과 성적인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중년기는 순발력과 운동 신경의 감퇴현상이 나타난다. 모래밭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도 아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간신히 다음날 출근을 하지만 후유증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중년기의 여성들은 40대 후반의 폐경과 함께 생식능력이 상실된다. 폐경을 맞는 여성들 중에는 두통, 메스꺼움, 골반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폐경 현상은 그 자체보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와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중년기 여성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 중년기는 자신의 일생 전체

라는 긴 시간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주어진다. 즉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time-since-birth)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time-left-to-live)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시간의 유한성이 바로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제까지 이룩해낸 업적과 포기해야만 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⁸⁾

중년기 개인은 지나가 버린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당면하여,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⁹⁾

2) 관계적 위기

(1) 의사소통의 결여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어원은 “communicare”로서 ‘공유하다’, ‘알게 하다’는 뜻이다.¹⁰⁾ 여기서 ‘공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부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결혼 상담자들은 서로가 좋지 않은 중년의 부부는 대개 대화 할 줄 모르는 부부라고 한다. 때로는 공개적인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시무룩한 침묵이 계속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나눌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¹²⁾

Balswick 부부는 대화를 ‘가정생활의 심장’으로 본다. 이들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눌 능력이 없는 가정은 머지않아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7)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205.

8) 김명자,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1998), 77.

9) 김명자, 『중년기 발달』, 78.

10) 방지현, 『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쿰란, 1994), 143.

11) 정정숙,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177.

12) Gary R. Collins, *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 1984), 109.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개인들의 집합체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우려하고 있다.¹³⁾

Clinebell은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법도 배워야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기술 훈련을 제안한다. 즉 배우자의 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듣기, 자기 표현법을 배우기, 서로 적절한 피드백 정보를 교환하기, 명료화하기 등이다.¹⁴⁾ 의사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의사를 전달하고 받는데 차이가 있을 때이다. 의사 전달자가 잘못 표현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잘못 곡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의사소통의 또 다른 문제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부정적 의사소통, 관계를 악화시키는 파괴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¹⁵⁾

John Powell은 다섯 가지 차원의 대화를 제시한다. 첫째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화이고, 둘째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이며, 셋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주고받는 대화이다. 넷째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진솔한 감정,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이고, 다섯째는 이신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단계이다.¹⁶⁾ 중년기의 건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대화란 부부 개인의 성장과 부부로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대화체계를 상호 모색하여 축복하고 힘을 돋우는 말로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2) 성적 부조화

부부생활의 성이란 결혼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 인간의 결혼 생활에서 섹스의 역할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섹스에 관련하여 부부는 피차에 신체적 결합은

13) 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황성철 역,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서원, 1995), 275.

14) 다원화목회연구회편, 『기독교가족상담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00.

15) Gottman은 갈등을 고조시켜 관계를 악화시키는 파괴적인 대화 유형은 상대비난형, 상대경멸형, 자기변호형, 도피형 순서로 진행된다고 본다. 이 순서는 결혼생활이 덜 위협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위협적인 것을 뜻한다.

16) 편집부편, 『기독교 가족 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39-140.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섹스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중추를 이루고 있다.

성은 인간의 건강과 마음의 균형과 살아있는 기쁨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 성욕의 충족은 건강의 한 요소이고 그곳에서 마음의 평온, 살아있는 기쁨을 얻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은 비밀스러운 것도 금기시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활화 되어야 한다. 식욕과 배설처럼 성욕 역시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위적으로 억압된 성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남성의 경우 성의 불만족을 외도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연구소의 설문 조사의 내용을 보면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남편의 외도율이 높은 것(26.8%)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중년 크리스천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30-40대 남성의 경우 7.63%의 외도 비율을 보이고 있다.¹⁷⁾

중년기 부부에게 생기는 성생활의 부조화는 회피할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중년기 특유의 성생활이 시작된다.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가정에서 부부 성생활의 기회는 늘어난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임신의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전보다 성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욕구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이 성생활에 몰입할 능력과 준비가 있는데 반해, 남성은 직업이나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과중한 역할과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와 심리적인 위축으로 성활동이 감퇴한다.¹⁸⁾

17) 진성희, “부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1988), 79.

18) 남성의 경우 성은 곧 힘과 동일시된다. 미/영국인 70명의 남성들과의 심층면담에서 얻게 된 사실은 중년기에 남성들은 힘의 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갱년기가 조용한 통과의례(silent passage)라면 남성의 갱년기는 차마 말 못하는 통과(unspeakable passage)라는 것이다. Gail Sheehy, *New Passages*, 287-292.

중년기의 남성은 발기의 문제, 여성은 질분비의 감소로 인해 성관계 문제에 당면하게 되며,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성관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성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라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성관계 중지의 타당한 이유로 생각할 것이다. 중년의 남성은 노화 되어가는 볼품없는 아내를 회피하며 성적인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3) 차이의 부조화

부부는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이나 교육 수준, 종교, 문화, 생활 습관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수면 아래 가리워졌던 차이점들이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결혼 전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여 후회감과 분노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부부 생활에서 위기가 되는 주요 차이점은 기대감의 차이이다. 또한 부부의 위기를 초래하는 갈등의 요소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이다.¹⁹⁾

남자와 여자는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부부의 위기와 갈등은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생활하게 되면 상대방은 욕구 불만에 쌓이게 된다. 부부간에 있어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갈등은 상대방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지침 중의 하나가 ‘일-생-진-행’이다. 즉 ‘일단 멈추라-생각하거-진정하라-행동하라’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Termini 등은 조언해 주고 있다.²⁰⁾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은 가정의 환경과 교육, 경제적인 배경, 신앙, 부모의

19) 부부는 서로의 개성, 습관, 취미, 관심, 생각, 느낌, 소망 등이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서로의 문제점들을 대화를 통해 힘을 합쳐 해결해야하는 치유의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하여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참조하라.

20) Ann Marie Termini & Susan Blyth Boyan,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Shielding Children from Conflict*, 홍경자·차영희·최태산·채유경 공역,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서울: 학지사, 2009), 218.

태도에 의하여 형성되어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원만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다른 성격과 개성,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갈등과 위기로 표출된다. 부부는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해야 한다. 상대편 배우자를 자신의 틀 속애다 맞추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이기적인 자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부부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위기를 잘 극복 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성숙시킬 뿐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4) 역할갈등

부부 역할이란 부부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행하는 반복적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부부 역할은 혼란스럽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를 위한 직장 생활(breadwinner)과, 여자는 가사와 양육에 주력 하던 역할(housekeeper) 모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역할 모형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자는 부부의 역할의 기대와 불만²¹⁾을 평가하고 상호 동의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역할 모형을 모색 하기 위해 역할을 재조정하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²²⁾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약화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 강도가 함께 약화되었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가정 전반의 일을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상호 분담하게 되어 점점 부부역할에 있어서 엄격한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부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평등관계이다. 가부장적인 권력주도형의 형태 속에서는 참 동반자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부의 역할도 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자나 여자 중 한 명이라도 그것에 적응하지 못

21) 현대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의 자기 스스로와 자기가 하는 일을 남성들이 하는 일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태도이다.

22) 유교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모와 새로운 민주적, 개방적, 평등주의적 가치관에서 의식하는 젊은 세대에 끼인 중년기 사람들이 갈등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 김예식, “중년기 위기와 부부상담”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90), 94.

한다면 그 부부는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3) 종교적 위기

중년기는 종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다. 중년기는 실존적인 물음 앞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살아 온 기간보다 적음을 절감하는 시기이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 둘 사라진다. 직장에서는 남은 햇수와 경쟁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지각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취업과 결혼 등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점차 종교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문화 뿌리에는 유교, 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고 생활을 하여온 지금의 중년 세대는 서구의 기독교에 대한 사상, 풍습, 교리 등에 상당한 반발을 가지는 세대이다. 이 세대와 서구의 기독교 문화의 만남으로 상당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문화는 효를 강조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효의 문화는 제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가족과 인류를 유지하게 되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사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우상 숭배로 여김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지금의 중년세대는 효를 강조하는 제사를 고집하고 있다. 한 가정의 신앙 상태를 보면 90%는 여성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무교 혹은 타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출석문제, 봉사의 문제, 헌금문제 등 많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고 이 신앙의 차이로 오는 갈등으로 인해 때때로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²³⁾

한편 중년기 크리스천 부부들은 자신들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족과 직장, 교회에서는 중년기 부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즉 주변의 요구와 기대치는 높아지나 이들은 예

23) 이현규, 『고난』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1), 67.

비자원이 고갈되어 죄책감과 초라한 자아상 등으로 인해 침체감에 빠질 수 있다. 직업에서 절정을 이루며 여유 있는 경제생활을 누리기도 하지만 은퇴나 실직의 가능성으로 이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중년들의 몫이다. 육체적인 신호에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이들은 쉽 없이 질주해야 주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은 타성에 젖어 침체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크리스천 부부의 신앙성숙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 추세이며 평신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대체로 교회생활에 더 적극적인 것을 감안해 보면 부부의 신앙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는 부부사이의 이해의 폭이 벌어지게 하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중년들의 역할과 비중은 지대하다. 교회에서 중년들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수준이 앞서 있는 배우자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인내함으로써 상대방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중년 크리스천 부부들은 교회봉사와 가정 형편과의 조화를 이루어 어느 쪽으로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한국의 중년기 부부들의 위기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단적으로 한국 중년들이 경험하는 전통 문화와 현실간의 갈등으로 가부장제 하에서의 가장의 권위적 사고와 아내에 대한 비인격적인 사고에서 빚어진 것이며, 변천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요소들과 비 적응으로 초래한 요소들이다.

오늘날 크리스천을 포함한 중년들은 갈등 요소들의 가장 극단적인 해결로서 이혼을 택하여 이혼율의 통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부부관계의 붕괴는 이미 사회의 커다란 갈등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교회 크리스천 중 상당수가 이혼 경력이 있거나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²⁴⁾

24) 김종필, “중년기의 위기와 목회적 대응 방법”(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2000), 37.

2. 중년기 부부 위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중년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

공동번역 성경에서 중년이라는 용어는 세 번(시102:24; 사38:10; 렘17:11) 언급된다. 첫 번째 시편에서 나타난 중년은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년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시102:23-24) 라는 문맥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시편기자가 울부짖는 기도는 자신의 생이 중년에 종말을 고향 것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시편 102편의 저자는 우울감, 침체감으로 가리앉아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의 원인 중 하나는 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시편기자는 남은 인생을 늘릴 수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²⁵⁾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구절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사38:9-10). 유다 왕으로 등극하여 전성기를 누리며 중년으로서의 성숙성을 한껏 발휘하여 치세(治世)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중년기는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된다. 유능성과 성숙성을 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체적인 무력감의 신호를 감지하는데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 번째 나타난 중년기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의뢰하는 자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할 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렘17:11)에서 나타난다. 불의로 얻은 중년기의 행복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25) Jim Conway, *Men in Mid Life Crisis*, 한성열 역, 『흔들리는 중년기』 (서울: 학지사, 1996), 78-81.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고난과 죽음, 파괴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중년의 시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면에서 생겨날 수 있다. 다음은 성경에 나타난 중년기 부부의 위기가 내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년기 부부 위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는 중년기 부부들의 위기와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갈등의 원인으로 의사소통의 부재, 상대 배우자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인생 목표의 차이 등 심리학에서 진단하는 위기의 증상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

(1)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위기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는 바깥에서 은밀히 엿듣게 된다(창 27:1-5). 부자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가정의 대사를 이삭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한다. 이들 부부의 의사소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의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양상이다. 더욱이 두 아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25:23)고 하신 말씀을 이삭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삭 부부는 외형적으로는 금슬이 남달라 보인다. 리브가는 약 이십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였는데, 이 긴 시간 속에서 내향적인 이삭과 적극적이며 행동적인 리브가는 성격 차이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부부 갈등을 분명히 겪었을 것이다.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아내와 의논해서 나온 행동이기 보다는 자신이 노화되어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사실과 별미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창 25:23) 즉흥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두 아들을 갈등관계로 만든 것이다.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이삭은 몹시 당황하고 오랫동안 이들 모자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부부간의 충분치 못한 대화가 한 가정을 깊은 갈등의 늪으로 몰고 간 것이다.

(2) 다윗과 미갈 부부의 위기

중년기 부부의 갈등 이면을 살펴보면 소중한 자신의 꿈이 배우자에게 이해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 꿈은 희망과 포부로서 인생의 청사진이며 목적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꿈을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여기면 문제가 발생한다. 다윗은 그토록 영원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겔옷(왕복)을 벗고 덩실덩실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창밖으로 남편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흥에 겨워 귀가한 다윗에게 조소와 경멸의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얽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삼하 6:20). 미갈은 자신의 남편을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방탕한 자로 치부해 버리며 업신여기고 있음을 역대상 15:29(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 배우자의 소망과 꿈을 무시하고 조소와 경멸의 부정적인 대화는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며 때로는 관계의 회복 불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무엘하 6장 23절의 말씀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위기의 요인들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의 복음전파를 위한 조력에 뜻을 같이하여 헌신한 부부이다. 신약성경에서 이 부부는 6번 등장한다. 누가의 사도행전(행18:2, 18, 26)에서 3번, 바울 서신서(롬16:3; 고전16:19; 딤후4:19)에서 이들 부부의 행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섯 번 중 네 번이나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다음에 남편의 이름을 쓰고 있다.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 남편보다 영적으로 더 봉사적이며, 더 헌신적이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으로 인해, 남편을 거북하게 하

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존경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부부가 항상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아내 브리스길라를 남편 아굴라보다 앞서워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특이할만한 일이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의 남편에 대한 어진 모습과 남편 아굴라의 아내에 대한 관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남편 아굴라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굴라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기 아내를 신뢰하고, 자기 아내가 영적으로 하는 모든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더 부각이 되고,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더 앞서워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내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애에서 실패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사도바울이 복음전파를 위해 떠나면 낯선 고린도 땅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이들 부부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일심으로 협력함으로써 성숙성(generativity)을 발휘한 부부이다(롬 16:3-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행 18:24-26). 이 장면에서 이들 부부의 관심사가 서로 같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인생의 목적도 서로 부합되어 있다. 이것은 이 부부가 시편기자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Ⅲ. 닫는 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중년은 가정과 사회, 교회, 그리고 정치적 · 경제적 권력의 구심점이면서 동시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위 위, 아래서 눌리고 밀리는 낀 세대들이다. 눌릴 때 억압감이 찾아오고 밀릴 때 패배감을 경험하게 된다. Chebat에 의하면 중년들은 젊은이나 노년들보다 더욱 높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은 다른 세대가 아닌 중년들에게 기대되어진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중년기는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됨과 동시에 중년기에 처한 남편은 젊음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직업에서의 은퇴, 가족 내에서의 권위 약화, 부인의 주도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축감을 느끼고 이것은 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년 남성은 자녀의 성장으로 결혼 생활과 가족의 의미에 회의를 느낀다고 하나 사회생활이나 직업보다는 가족생활을 더욱 중요시하기 시작하며, 40대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은 직업에서의 성공보다는 행복한 가정 생활, 남편의 역할 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²⁷⁾ 특히 중년기의 남성은 잠재되어 있던 여성성의 출현으로 유친성이 증가되면서 부인과의 동료감,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후배에 대한 지도자 관계 등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러한 중년기 남성의 변화가 남성성 출현으로 도구적(instrumental)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을 수가 있으며 부인의 주도성, 자유감 등이 직업생활 위축과 가족 내의 권위 약화를 경험하는 남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한 아내가 더 이상 순종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 남편은 아내를 떠나 복종적 역할이 가능한 젊은 여성을 찾으려 나설 수도 있다. 중년의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청춘을 회복하려는 것 보다는 자신이 남성답게 보여지기를 원하기

26) J. C. Chebat, "Social Responsibility,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las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 no. 4 (1986): 559.

27) L. M. Tamir, "Men at Middle Ag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64 (1982): 47.

때문이며 순종적인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간의 문제로 별거, 이혼 등의 다양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에 해체되는 가족은 신혼기부터 부부 상호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자녀 양육기 동안 억압되어 묻혀 있다가 자녀의 성장 독립으로 부부가 상호 독립적 개인으로 마주 대하면서 갈등이 다시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⁸⁾

Gary R. Collins는 부부사이에 갈등이 주어지는 원인은 잘못된 대화에서 비롯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⁹⁾ Clinebell은 끊임없는 성장과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계획성이 성숙한 중년기의 삶을 이루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자기투자와 결혼생활에서는 상호간의 풍성한 관계형성을 위해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자녀중심 생활에서 배우자와 함께 노력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성숙한 중년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기독교상담자는 한쪽 배우자의 결핍된 상처에서 나오는 대상을 찾는 욕구를 심리적 산소(psychological oxygen)로서 공급해 주는 내담자의 자기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내담자에게는 공감하며 수용해 주는 자기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ohut은 특히 그의 자기 심리학(self-psycho)의 이론과 치료의 기술로써 내성적-공감적(introspection-empathy)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즉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데 있어 그 사람의 경험 중심적 공감의 방법론을 일관되게 자기 심리학의 방법론과 이론의 뼈대로써 강조하고 있다.

Kohut의 입장은 어린 시절의 발달의 경험에서 건강한 자기대상(self

28) 김명자, 『중년기 발달』, 121.

29) Gary R. Collins, *Effective Counseling*, 109-110.

30) Howard J. Clinebell, *Growth Counsel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82), 150.

object)으로 부터의 심리적 산소(psychological oxygen)의 결핍이 발달 결핍이 되어 모든 인간의 정신병리의 원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의 결핍은 한 두 번의 반응의 실패로 인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자기대상의 반응 실패에 기인된다고 본다. 이러한 반응 실패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자원들을 고갈시킨다고 생각된다.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cohesive self)를 구축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편화된 자기개념(fragmented self), 혹은 자기의 혼돈들(disorders of the self), 취약한 자기(weakness of the self) 등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자기대상의 지속적인 공감 및 건강한 관계맺음의 실패가 축적된 결과이다.³¹⁾

이렇게 병리적으로 약한 자기는 자신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건강한 자존감의 결여 등으로 표출되는 내담자의 전이를 이해하고 치료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개인의 현실세계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고 재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을 궁극적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가 치료적 개입(intervention)으로 적용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료하고 내적으로 성장이 된다면 개인은 그 이전보다 훨씬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것이다. 이런 자기효능감은 용서를 통해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배우자의 관점과 보다 확대된 관점을 취할 줄 아는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s)을 향상시키게 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에 늘 자신을 잘 달래주고 진정시켜주며 지속적 거울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을 찾게 된다. 그러나 자기대상이라고 여긴 그 사람도 자신의 거울욕구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존재이다. 이 둘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만 상호

31) 정석환, “코헷의 자기심리학과 목회상담”,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 27권 (1999): 335-342.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서로 주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과 배우자를 인간으로서의 제약성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또한 용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겠다.

중년기는 개인과 가족이라는 경계는 사라지고 가족이 곧 나를 주관하며 중심을 차지한다. 특히 관계 중심의 성향이 강한 한국가족 문화의 특성으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큰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수치심(shame)은 대개 자아(ego)와 이상(ideal)과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특히 집단성향이 강한(high-context) 문화에서의 개인은 내집단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아와 이상간의 괴리로 죄책감(guilt)보다는 수치심이 더 많이 유발된다. 수치심은 어떤 일의 실패에 앞서 미리 느끼는 불안이라 볼 수 있다.³²⁾

그러므로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고 개인은 자기가 속한 내집단(예를 들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자신이 그 집단 전체와 잘 조화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따르더라도 내집단에 따르고 순응하면서 인간관계 유지에 힘쓴다.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 성향이 강한(high-context) 문화권은 친지와 가족, 친구와 같은 내집단의 구성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압박과 강요를 받는 개념이다. 또한 명예나 수치심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묶여 있기에 심리적이고도 정서적인 구조물로도 볼 수 있다.³³⁾

중년기 부부는 고통에 고착된 자신의 삶을 지배해 오던 목소리에서 벗어나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고 그동안 방어에만 매여 있던 에너지로부터 벗어나 보다 배우자의 관점에서 공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완전성도 자각하여 마음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변화된 관점과 정서, 행동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효율성과 성숙성의 에너지를 잘 살려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32) David W. Augsburger,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82-84.

33) Augsburger,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86.

른 사람을 돌보고, 삶의 축복들을 나눔으로 연결함으로써 건강한 중년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중년기 위기를 겪는 내담자를 만날 때, 한 사람의 인생무대에서 동일하게 펼쳐지는 내적 위기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다. 만약 삶에서 전개되는 위기의 문제는 내재적 질서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죄는 초월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면 내담자의 혼돈은 더 가중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필자는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상담자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 곧 심리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에 능숙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좀 더 주의 깊게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한 심리 치료적 도움만이 아니라 신앙의 맥락에서 심리 치료적 도움을 청하러 오는 내담자들을 위해 기독교상담자들은 자신이 떠맡고 있는 해석적 업무³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심리 치료적 해석뿐만 아니라 명쾌한 신학적 해석까지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이 기독교상담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되어 온 보다 중요한 다른 인생 주제를 찾고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중심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 이야기가 연속성과 통합성을 지녀 응집력이 있는 건강한 이야기를 구축하도록 기독교 상담자는 중년기 부부와 함께 써내려가야(co-authoring)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중년기 부부의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다고 추정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³⁵⁾ 아울러 중년기에 대한 미래연구는 부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관점으로써 접근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또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이론검증을

34)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목회상담자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지혜롭게 돌보기 위해서 4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지도(guidance), 치유(healing), 화해(reconciling), 그리고 지탱(sustaining)이 그것이다. Charles Gerkin,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유영권 역, 『목회적 돌봄의 개론』 (서울: 은성출판사, 1999), 30.

35) 김미경, “중년기 이혼상담의 이야기 치료적 접근”,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제 11집 (2007): 231.

위해서 우선은 한국적 문화 상황에 적절한 척도의 개발과 개정을 지속시키고, 다양한 이론체계에 의한 검증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설계의 시도가 요구된다.

한편 중년의 내, 외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실용적 보급 방안이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공동노력으로 강구되어야 하므로 교회와 기독교 상담 측면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강병도 편저. 『호크마 종합 주석: 신약 제 5권』. 서울: 기독지혜사, 1991.
- 김명자.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1998.
- 김미경. “중년기 이혼상담의 이야기 치료적 접근”.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제 11집 (2007): 215-236.
-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 김예식. “중년기 위기와 부부상담”.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90.
- 김종필. “중년기의 위기와 목회적 대응 방법”.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2000.
- 다원화목회연구회편. 『기독교가족상담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방지현. 『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쿰란, 1994.
- 이경애.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81.
- 이현규. 『고난』.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1.
- 정석환. “코헛의 자기심리학과 목회상담”.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 27권(1999).
- 정정숙.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 진성희. “부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1988.

- 편집부편. 『기독교 가족 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Augsburger, David W.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NJ.: The Westminster Press, 1986.
- Augsburger, David W.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Balswick, Jack O. & Balswick, Judith K.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황성철 역.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 Boyan, Susan Blyth & Termini, Ann Marie.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Shielding Children from Conflict*. 홍경자 · 차영희 · 최태산 · 채유경 공역. 『이혼 · 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서울: 학지사, 2009.
- Chebat, J. C. "Social Responsibility,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las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 no. 4 (1986): 559-561.
- Clinebell, Howard J. *Growth Counsel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82.
- Collins, Gary R. *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 1988.
- Conway, Jim. *Men in Mid Life Crisis*. 한성열 역. 『흔들리는 중년기』. 서울: 학지사, 1996.
- Gerkin, Charles V.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유영권 역. 『목회적 돌봄의 개론』. 서울: 은성출판사, 1999.
- Jacques, E.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1967): 502-514.
- Lee, Jung Young. *Marginality :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McAdams, Dan P. & Aubin, de St.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 Sheehy, Gail. *New Passages*. New York: Random House, 1995.
- Tournier, Paul. *The Four Seasons of Life*. 한준석 역. 『인생의 네 계절』. 서울: 종로서적, 1981.
- Tamir, L. M. "Men at Middle Ag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64 (1982).

【 Abstract 】

The Crisis of Midlife Couples and Christian Counseling

Mi Kyung Kim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Midlife has important meaning in one's adulthood, bringing some different types of emotional change such as dilemma, agony, happiness or developmental task. Taking leave of old things in the past time, Midlife can be a crucial turning point to start one's life over again. As longest period in life circle, Midlife is a so-called sandwich generation and prime days at the same time. Also, people in this period become to show generativity and activeness to readjust them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feeling the limit of possibilities in the future. Couples in their Midlife are confronted by the question, "How can I manage the rest of my life?". This simple but meaningful question may be the key of readjustment.

Midlife couples who spent most of life to support their sons and daughters with full of responsibility are now coming back to the empty nest without romance and passion they used to have in their youth, being forced to re-evaluate their marital relations. Conflicts are generally coming from lack of communication or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couple and their family members. This crisis, in modern society, may cause a family break-up, so it is required to lend assistance for them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followed by the extensive diagnosis on the reason of crisis.

Key words: midlife couples, crisis, Christian counseling, generativity, communication